

2028 대입, ‘숫자’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에 전례 없는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내신 5등급제 전환과 수능 선택과목 폐지라는 제도적 변화는 단순히 평가 방식의 수정을 넘어, 인재 선발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엎는 거대한 신호탄이다. 이제 ‘누가 더 실수를 줄여 높은 점수를 얻느냐’는 결과 중심의 시대는 저물고, ‘누가 더 치열하게 탐구하며 성장했느냐’는 과정 중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1등급 10%’의 함정: 보편화된 탁월함과 ‘세특’의 부상

가장 먼저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은 내신 등급의 하향 평준화다. 기존 9등급제에서 상위 4%에게만 허락됐던 1등급의 영광은 이제 10%까지 확대된다. 과거 전교 1등부터 7등까지만 누리던 1등급의 지위가 20등까지 넓어지면서, 상위권 대학 입시에서 내신 1등급은 더 이상 탁월함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이제 1등급 성적표는 합격을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아니라,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입장권’에 불과하다.

대학은 이 무더진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것이다. 교과서의 지식을 넘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심화 주제를 탐구하며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지적 호기심의 궤적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부 기록은 착실한 학교생활의 증거를 넘어, 학생의 학문적 깊이와 잠재력을 증명하는 ‘학술적 포트폴리오’로 진화해야 한다.

◆정시의 진화 : ‘수능 올인’의 종말과 교실의 복원

변화의 파도는 수시를 넘어 정시 모집(수능 위주 전형)까지 덮치고 있다. ‘정시=수능 100%’라는 견고했던 공식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학교는 2028학년도부터 정시 모집에서 교과평가 비중을 40%로 대폭 확대하며, 수능 점수만으로는 결코 인재를 선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건국대학교 역시 정시에서 학생부 정성평가 20%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교 교육과정을 외면한 채 오로지 문제 풀이 기술만 연마하는 ‘N수생’이나 ‘수능 기계’들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장이다. 이제 정시에서도 고교 3년간의 충실한

수업 태도와 교과 이수 현황이 당락을 뒤집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선택 과목의 전략: 회피는 곧 탈락이다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2028 대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는 단연 ‘과목 선택’이다.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들은 이공계열 지원자들에게 미적분, 기하, 물리학II, 화학II 등의 과목 이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수능에서 심화수학이 폐지됐다고 해서 대학이 그 역량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대학은 수능에서 확인하지 못한 수리·과학적 심화 역량을 학생부를 통해 더욱 꼼꼼히 검증하려 든다.

따라서 “내신 따기 쉬운 과목”을 찾아다니는 알박한 전략은 2028 대입에서 통하지 않는다. 공학 계열을 지망하면서 물리학II를 피하거나, 경제학부를 지망하면서 미적분을 듣지 않는 것은 스스로 ‘준비되지 않은 학생’임을 자백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입시에서의 ‘전략적 자살’이나 다름없다.

결국 ‘학습 설계자(Learning Designer)’만이 살아남는다. 2028 대입 패러다임의 핵심은 ‘점수의 양(Quantity)’에서 ‘역량의 질(Quality)’로의 전환이다. 이제 ‘수동적 문제 해결자’에서 벗어나 ‘능동적 학습 설계자’로 나아가야 한다. /JBS진로진화연구소장

경제규모 15위로 처졌다



김 연 세

(정책사회부)

지난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이를 인용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4년 연속 성장세가 열세일 것이라며 염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다.

언뜻 보면 ‘경제규모 해비급 나라보다도 둔한가’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은 체급이 훨씬 가벼움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게 아닌가 하는 초조감마저 들 소지도 있다. 나라 경제가 돌연 엉망이 된 건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은 미흡해 보인다. 미국에 역전 당한 게 3년 전쯤부터라니 굳이 설명할 필요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사실 IMF의 ‘1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미국과의 비교는 헛걱정이거나 모로 가도 깎아내리기 측면이 짙어 보인다. 보고서는 올해 미국 GDP(국내총생산)가 2.4%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반해 일본 GDP 증가는 0.7%에 그칠 것으로 봤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성장 전망치도 각각 1.3%, 1.0%, 1.1%, 0.7%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게 잡혔다. 한국에 대해선 서방 주요 4개국 수치를 모두 훌쩍 넘는 1.9%를 제시했다.

그뿐인가.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는 러시아(0.8%)와 브라질(1.6%), 멕시코(1.5%) 등도 한국보다 성장률이 낮을 것이라 전망이다. 단, 한국은 기저효과(작년 1.0% 추정)에 의해 올해 일정 수준 반등이 예견돼 있는 터라, 경기가 확 살아나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새 정부 두둔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12·3 사태로 수렁에

빠졌던 경제·사회 복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누군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진짜 걱정할 문제는 원·달러 추이다. 해외의 다른 자료를 보니, 환율이 주요국 GDP 순위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게 보인다.한때 경제규모 10위권에 들었던 한국이다. 이후 13위까지 밀리더니 올해 기준 두 계단 더 내려간 15위로 처진 것으로 전해진다. 멕시코·호주에도 뒤지는 상황. 리서치FDI라는 곳에서 IMF 보유자료 참조해 만든 ‘2026년 기준 GDP 상위 25개국’ 보고서에 이같이 나와 있다.

재화 생산을 많이 해 자국통화 기준으로 GDP가 많이 증가해도 미 달러화 환산시 달라진다. 원화 초약세에 따라 15위권도 위태하다. 우리 바로 밑 16, 17위는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다.

/세종=kys@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22일 (음 12월 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안 되는 일을 억지로 하려 들지 마라. 48년생 기다리던 투자를 할 때. 60년생 중요하지 않은 전화를 항상 붙잡고 놓아지니 주변은 짜증난다. 72년생 감기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진. 84년생 도리보다는 실속이 우선.



37년생 동업자와 사이에 재물손실. 49년생 이사 방향을 잘 보고 가야. 61년생 연인과 사랑은 깊어 가는데 떠나간 연인의 등장으로 혼란. 73년생 형제의 재산 나눔 시비에 관여말라. 85년생 출장 다녀와서 문서계약이 성립되는 날.



38년생 투자하다가 벼락 거질될 것. 50년생 자녀에게 돈 주려고 하기보다는 심성을 바로 쓰도록 가르칠 것. 62년생 내일부터는 무난하다. 74년생 현실이 고달프거나 저조하다면 취침을 살펴볼 것. 86년생 오후에 북쪽으로는 가지 말라.



39년생 친구가 나를 돕는다. 51년생 목표를 향해 전진하니 오후에 달성. 63년생 주식 투자계획에 세심한 주의. 75년생 일진은 미신이 아니라 주로 일상생활에서 흥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은 택하라는 것이다. 87년생 말하기를 삼가야.



40년생 낮12시에 운전 차량에 주의. 52년생 오늘은 특히 음주는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64년생 각자 빨간 신호일 때 질서를 지켜라. 76년생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기보다는 흐름에 합류해야. 88년생 속신도 있었으나 택일은 중요하다.



41년생 길이 생기니 기회는 늘 있는 것. 53년생 근심 걱정이 오히려 손재수를. 65년생 부귀를 암시하는 재관(財官)은 겸손에서 시작. 77년생 외출할 때에 흰색 옷이 활기차게 보일 것이다. 89년생 종교 이전의 종교는 무속신앙이 출발.



42년생 아늑하고 습한 곳에서 사는 쥐는 병을 옮긴다. 54년생 부모님의 안부를 챙겨보라. 66년생 텔레파시가 일치하는 인연을 소개받음. 78년생 뒤통지 알면 피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 90년생 전통은 풍속을 뛰어넘어 하나의 신앙이다.



43년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 55년생 안 된다고 희망을 버릴 수 없다. 67년생 길거리에 침 뱉는 습관은 고쳐라. 79년생 매일 아침이 오듯 자연도 부메랑이 니 깨끗하게 생활해야. 91년생 흰색 구두를 바꿔 신어 볼 것.



44년생 욕심내다 빚만 진다. 56년생 좀 더 일찍 선별 작업하면 목표의 두 배가. 68년생 심술이 발동하다 이별 수. 80년생 재개발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다 실없는 사람. 92년생 기도는 신비한 신통 술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연속이다.



45년생 오후 내내 차조심. 57년생 소소한 공중도덕을 지키는 것이 일진을 길하게 한다. 69년생 즉흥적 오후 쇼핑은 다음 날로 하자. 81년생 바람대로 되니 감사하다. 93년생 새해 들어 신년기도 발원을 통해 의도치 않은 우환을 피해간다.



46년생 조직에서 벗어난 생각은 아예 접어라. 58년생 칠성님께서 자식을 얻게 하니 그 무엇보다 감사. 70년생 일진이 막히니 귀 막아라. 82년생 로또 복권을 사고 일주일을 기다리듯 보람 있는 날. 94년생 평생 숙원인 부동산 자격증에 도전.



47년생 한눈팔지 말고 가까운 사람에게 성의를 갖도록. 59년생 전문가의 권유에 따라 매수를 하니 도움이 된다. 71년생 노력한 대가가 따른다. 83년생 오후 늦게 기쁜 소식이 온다. 95년생 능력은 없으면서 무슨 불평이 그리 많은지 반성.

김상회의四季

인생은 수행



음력으로는 을사년인데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유달리 유명을 달린 배우들이 많은 한 해였다. 양력으로는 2026년 1월이지만 을사년 동짓달에 국민배우 또 한 분의 작고 소식을 들으며 너무 빨리, 라는 안타까움과 정말 “인생을 잘 산” 분으로 새겨진다. 가수가 되었던 배우가 되었던 자신의 재능을 직업으로 삼더라도 출가 수행자라도 차별을 둘 수 없을 만큼 어떤 경지에 도달한 결과를 보여줌을 느끼게 한다. 세간의 삶에서도 국민배우 칭호를 얻을 만큼 성공했지마는 평소 살아온 모습은 수행자의 구도 정신과 닮아 있었고, 자신의 생활과 철학을 진지하게 실천해 온 분이란 걸 알게 되었다. 가끔 들려오고 보도되기도 한 기사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고인의 별세 소식과 함께 실린 여러 글에서도 평소 필자가 가졌던 생각처럼 직업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안과 밖이 훌륭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느낀다. 수행은 어디 먼 데 깊은 산속에서 동떨어진 곳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자신의 직업에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탐구하였지만, 개인의 생활에서도 존재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것이 바로 방일하지 않는 노력과 절제 그리고 돌아봄이란 것을 알고 중심을 잃지 않았다. 한 작품이 끝나고 다음 작품이 시작되기 전까지 짧이 날 때면 반드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재충전 기간에 책을 한 권이라도 읽은 배우는 다음 작품에서 눈빛이 달라진다.”라는 이유였고 절대 겹치기 출연을 하지 않은 것도 “자기 축적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 연기는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지론 때문이라고 하니, 일상이 수행이다. 우리 시대의 축복, 굳이 명복을 빌지 않아도 그는 이미 천국의 마음을 지녔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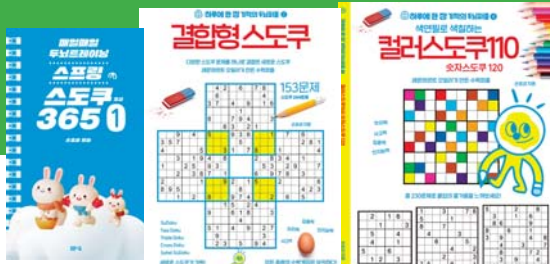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8	9	6				
	5							
			3		5			
9			4			1		
	6			9			2	
		4			6			7
			5	3				
							7	
				2	8	5	1	



4	5				8	6		7
				6				
				7				
	9			3				1
			8		6			
1				7				4
			7					
				2				
2		9	1				3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1	9	8	2	2	9	6	7
2	2	7	6	1	9	9	8	8
6	9	8	8	7	9	1	2	2
2	9	6	9	8	2	7	1	8
7	2	8	1	6	8	2	9	9
9	8	1	2	9	7	8	2	6
1	6	9	9	8	8	2	7	2
8	8	2	7	2	1	6	9	9
9	7	2	2	9	6	8	8	1

9	8	7	9	8	1	6	2	2
9	2	1	6	2	9	7	8	8
2	8	6	8	7	2	9	1	9
8	7	9	2	1	6	8	9	1
8	6	2	9	1	8	9	7	2
1	9	2	7	8	9	2	6	8
6	1	8	2	9	7	8	2	9
7	9	8	1	9	2	2	8	6
2	2	9	8	6	8	1	9	7